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2호 【루계 제25100호】 주체104(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해당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그물우리양어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대동강을 비롯한 강과 호수들에서 그물우리양어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모든것이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만들어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옥류교와 릉라도사이에 띄워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면적이 1,600여㎡인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기를수 있는 그물우리들과 종합조종실, 사료창고,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이 산뜻하고 멋있으며 대동강과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하시면서 날마다 변모되여가는 평양시의 모습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설비들이 전혀 필요없으며 많은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그물우리양어는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큰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양어추세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 면이 바다로 되여있고 강과 호수를 많이 끼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시설들의 특성과 물고기기르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게 물온도, 폐하,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그물우리별먹이공급량과 공급회수, 공급시간은 물론 나비등, 불장식등을 자동조종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장마철에는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겨울철에는 강바닥에 가라앉힐수 있도록 그물우리들을 설치함으로써 계절적영향을 받지 않고 물고기를 기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수심에 따라 서식장소가 서로 다른 물고기들의 특성을 리용하여 그물우리들에 기념어, 룡정어, 잉어, 조개 등을 층층이 배치하였을뿐만아니라 먹이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사료공급체계를 마련해놓았는데 양어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태양빛전지로 양어장관리운영에 필요한 동력문제를 해결한것도 좋고 종업원들의 휴식장소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해갑문이 일떠선 결과 대동강이 대인공호수화되였으며 최근에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건설되여 무려 10여개의 인공호수들이 생겨남으로써 민물양어를 할수 있는 유리한 수역들이 많아졌다고 하시면서 강과 호수들에 새끼물고기들을 방류시키는것과 함께 그물우리양어장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물우리양어를 잘하자면 해당 수역의 특성에 맞는 양어방법과 기준을 확립하며 우량품종의 물고기종자와 사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그물우리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물우리양어장에서 물고기생산량을 늘이기 위해서는 수산성을 비롯한 해당부문에서 정책적지도, 과학기술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선진양어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물우리양어를 하면서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정말 잘 꾸렸다고 만족해하시면서 평양시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남먼저 기치를 들고나감으로써 선각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돌아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적인 양어의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평양시가 전국의 앞장에 섰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물고기문제를 푸는데서 커다란 예비로 된다고 하시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평양시에서처럼 현대적인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요구로 받아들이고 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은 인민들의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양어장의 종업원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경험을 축적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보게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시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기시며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발단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령도방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4(1975)년 11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신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 온 나라의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세폭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당의 대중운동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며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식의 독특한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적변혁과정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기 위한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고 혁명과 건설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대중령도의 근본요구가 구현되여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정당성과 견인력으로 하여 발단되자마자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화가 타오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년간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변혁이 이룩되여온 긍지높은 나날이다.

지난 기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열풍속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우리 혁명의 정치군사진지가 철옹성같이 다져진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천만의 심장속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억세게 뿌리내리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실현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된것은 자랑스러운 전변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숭고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왔다. 이 전인민적대중운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공세가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가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지난 40년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 경제문화건설에서 세기적인 전변이 이룩된것은 특기할 성과이다.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 기술개조운동, 문화개조운동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나날에 인민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이 강화되였으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고 체육과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특히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전면적인 제재압박책동으로 하여 부닥친 최악의 역경속에서 선군시대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과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된것도, 희한한 사회주의선경들이 도처에 솟아나고 선군문화의 개화기가 열려진것도 강성국가건설시대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와 풍부한 투쟁경험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으로 빛내일수 있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적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시였을뿐아니라 그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시기부터 그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의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수행방도들을 정확히 규정하여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이 운동을 당이 직접 틀어쥐고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며 3대혁명소조와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이끄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부대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들에 대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선구자들의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주체적대중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한 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불변의 전략적로선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였다. 더욱 활력있게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투철한 혁명정신과 높은 과학기술지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3대혁명기수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야말로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기질에 맞고 광휘로운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투쟁방식이라는것이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우리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년대기로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시켜나갈 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강성번영의 맥동이 높아질수록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발단 40돐을 계기로 이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며 이 운동이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을 앞당기고 자기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뼈와 살에 쪼아박을 때 3대혁명수행에서 기수의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다. 전체 인민이 검덕과 청산리에서 타오른 불회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1970년대의 그 열기, 그 분위기가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길에 꽉 차넘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령도업적단위들이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전형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경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궐기단위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종업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총화평가사업을 잘하며 목표실현의 여러 공정과 계기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적극성을 높여주는 힘있는 정치사업과정으로 일관시켜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질적인 은이 나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방침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고 당정책을 당이 의도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오늘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력사적인 당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와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운동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이 운동을 자기 단위 사업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을 가지고 실효성있게 벌려 모든 종업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참된 혁명투사로 키워야 한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위한 사업도 생산과 경영활동,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과 생활조건, 생활양식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킬 높은 투쟁목표밑에 통이 크게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이 운동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담보이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장악지도와 총화대책사업을 짜고들며 이 운동에 대중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대비약적혁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부단히 보충갱신하고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더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이 운동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될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마련하여주신 주체적대중운동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로 될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드높이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로,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로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전우봉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성악학부 전 교원인 인민배우 전우봉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7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고 리을설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리을설원수를 잃은것은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을설원수는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결사보위하였으며 나라의 무력발전행로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겼다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길림신문》,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국제방송망, 길림망,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 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미국의 VOA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에 참가하신 소식을, 중국의 《로녕신문》은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 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신문들과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을 만났다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손광호 체육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만추장국 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스까트

오만추장국 추장

까부스 빈 싸이드페하

나는 오만추장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에 발전과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평 양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바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고와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남조선인민들 높이 칭송

남조선인민들은 력사의 땅판문점에 조국통일의 숭고한 뜻을 새기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오늘도 못 견디게 그리며 한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통일애국청년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민족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중대사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시각까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하시려고 심혼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지를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의 력사적장거였다.

장군님께서 긴장과 위험속에 있는 판문점에 나오시여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락관,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니 그분의 애국애족의 일념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주석님의 통일유지를 끝까지 관철하시려는 불변의 신념, 겨레의 념원실현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신 숭고한 뜻이 담긴 애국애족의 행보로 통일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김정일**장군님의 걸음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걸음이였다, 거룩하신 장군님의 그 모습, 그 자욱은 온 겨레를 통일성전에로 부르는 승리의 상징, 통일조국의 미래를 보는 희망의 상징이였다고 토로하였다.

경기도 리천에 사는 한 회사원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물하시기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드시여 통일위업의 진두에서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김정일**장군님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뜨거움에 젖어 언명하였다.

자유기고가 황만옥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조국통일운동이 전진할수 있는 길을 사상리론적으로 밝히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조국통일의 국면을 여시기 위하여 력사적인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하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여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국방위원장께서는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민족대단결5대방침도 제시하시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주석님의 통일유훈관철을 지상의 과제로 간직하신 국방위원장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위대한 공적이라고 칭송하였다.

《한민족복지재단》 성원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과 넓은 아량으로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분렬의 시대를 통일의 시대로 바꾸어주신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마음속 진정을 터놓았다.

부산에서 진행된 《통일에 거는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통일운동단체의 한 성원은 민족의 통일운동을 곧바로 이끌어주시고 넓으신 도량과 사랑으로 겨레모두를 통일애국의 광장에 세워주신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태양, 통일조국이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6.15통일시대의 승리의 표대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채택과 그 이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사변적성과들, 우리 민족이 발휘하고있는 민족자주정신과 전민족적인 련대련합은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 6.15통일시대를 펼칠수 있은것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라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천세만세 빛날것이라고 격찬한 한 재야인사의 가슴속에도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의 정이 소중히 어려있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통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린다.》, 《조국통일실현에 바쳐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고와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력사는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경모심은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

평 양 도 착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40돐에 즈음하여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표대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대회참가자들이 도착하게 될 평양역에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지난 기간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인민경제 각 부문의 3대혁명기수들과 선군시대 공로자들을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을 태운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섰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곽범기동지, 김평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를 새겨온 크나큰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축 하 문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당이 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기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는 건설자들과 련관부문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솟아난 자랑찬 창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나날에 벌써 청천강에 계단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100(2011)년 10월 13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진출하는 돌격대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었으며 돌격대원들과 일군들이 미래를 앞당겨오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해나가도록 고무격려해주었다.

력사적인 새해전투적호소들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중요건설대상들의 앞자리에 내세워주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는 당중앙의 크나큰 은정과 현명한 령도는 청천강전역에서 결사관철의 낮과 밤이 흐르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들이 창조되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는 당중앙이 안겨준 시대의 선구자, 개척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건설자들의 결사의 의지와 당의 뜻과 리상을 창조의 기준, 표대로 내세우고 최상의 높이에서 관철하고야마는 숭고한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평안남도와 평양시, 황해남도려단을 비롯한 도려단들과 철도성려단, 건설건재공업성려단,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돌격대원들은 건설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가장 어려운 가물막이공사를 백두의 공격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해제끼고 언제와 발전기실공사, 물길굴과 조압수조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내밀었으며 운영기업소 종업원들의 살림집과 휴식터, 방수로와 물고기길까지 그튼튼히 갖춘 멋쟁이발전소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공사기간 돌격대원들과 일군들은 진흙속벽식가물막이방법과 대형수평침착기를 비롯한 새로운 공법들과 기술기재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훨씬 높이였으며 청천강과 묘향산일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여러가지 꽃들을 많이 심어 조국의 산과 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와 화학건설련합기업소, 전력공업성려단의 전투원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선진공법으로 발전기와 수문설치공사, 옥외변전소건설과 송전선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설계부문 일군들은 건설의 첫 공정을 담당한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고 설계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하였으며 북창발전소건설기계화사업소와 내각사무국 운수중대의 전투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무기를 나르는 심정으로 발전설비들과 건설자재수송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력공업성, 전자공업성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기상수문국 등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들은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희천1호, 2호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들에 대한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물관리와 전력생산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지휘부와 각 단위 지휘성원들은 인민군대식선전선동의 된바람과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청천강전역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팍 차넘치게 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였으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고 립체전조직과 지휘를 탄력있게 하여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청천강전역에서 이룩된 혁혁한 성과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과 전국각지 인민들의 지원속에 마련된 고귀한 응축물이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당창건 일흔돐까지 완공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수십대의 발전기와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경성애자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도 세멘트와 강재 등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전국의 당조직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은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건설자들을 고무하여주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과 예술선동대들은 공사현장에서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된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청천강을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전기강, 락원의 강으로 만드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위대한 당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선물이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지상의 명령으로 간직하고 결사관철하여 청천강일대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고 젊음으로 약동하며 문명해지는 백두산대국의 모습과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자들은 시대의 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며 우리 당과 조국은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애국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려 청천강을 길들이고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대규모의 발전소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개척자, 선구자의 값높은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희천의 정신과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번영하는 조국땅우에 후손만대에 물려줄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희천발전소건설지휘부와 각 단위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계속 고조시키기 위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리며 공사전반에 대한 작전과 장악지휘를 책임적으로 짜고들고 건설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발전소운영을 맡은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고 건설자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수력구조물들과 발전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과학적인 운영체계를 세워 평양시에 대한 전력공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청천강일대의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석축공사와 호안정리사업을 잘하고 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양어와 관광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 청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영웅적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승만을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의 기개와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보다 큰 위훈을 창조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11월 7일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청천강계단식발전소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완공되여 온 나라에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로력적선물이며 당이 제시한 목표를 향해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줄기차게 달려온 청천강용사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비의 헌신성이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다.

희천1호, 2호발전소를 완공한데 이어 청천강의 200여리 구간에 10개의 계단식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이 빛나게 관철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완공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대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천만군민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준공식이 17일 희천9호발전소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태종수동지와 김덕훈내각부총리, 김만수전력공업상,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김용광금속공업상, 리종국기계공업상, 김재성전자공업상, 장혁 철도상, 도당책임비서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 련관단위 일군들, 발전소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은 시작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오수용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완공을 선포하는 뜻깊은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미래를 앞당기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발전소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연설자는 방대한 설비생산과 조립공사를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건설자들에게 인민군대에서 잡은 많은 량의 물고기도 보내주시였으며 강력한 의료진을 파견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은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건설자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은 청천강의 영원한 흐름과 더불어 부강조국건설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원대한 수력발전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전국도처에서 용약 떨쳐나온 건설자들이 청천강전역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으로 여기고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청천강전역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심장의 피가 끓어번지고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 사상과 신념의 결전장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건설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한겨울의 모진 강추위와 장마철의 엄혹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대담하고 기발한 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가물막이와 발전기실공사,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건설공정들에서 최대의 속도와 최상의 질을 보장하며 어머니당에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 혁신의 한길을 달려왔다고 말하였다.

송전선공사와 설비생산, 조립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발전소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하는데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 전 과정을 걸음걸음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도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당 및 국가표창, 명예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돌격대원들과 일군들,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전례없이 앙양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기세와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모두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이 땅우에 하루빨리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으로 높이 받들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오늘의 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덕을 볼수 있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울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건설자들이 청천강전역에 나래치던 불굴의 정신, 비약의 기상을 더욱 고조시켜 새 대상공사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결사관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발전소운영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며 운영건물과 살림집들을 정상유지, 정상관리함으로써 발전소주변을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고 청천강반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청천강용사들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세폭의 붉은기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대중운동의 위력이자 당조직의 전투력

평양시당위원회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지난 40년간은 우리 당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떨쳐온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최근년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대중운동의 위력이자 당조직의 전투력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이 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의 전투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부서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들이 자기의 직능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부서, 모든 일군들이 이 운동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발동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각 부서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이 운동에 대한 지도분공을 명백히 주었다. 주관부서는 물론 모든 부서의 부부장이상 일군들에게 령도업적단위들을 하나씩 맡겨주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적극 떠밀어주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밀고나가는데서 부서들사이에 배합 및 협동작전을 잘하도록 하는데도 모를 박았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과정은 부서간 배합작전, 협동작전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보다 본격화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을 받들고 농장을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던 때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드센 사상공세로 건설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는 한편 모든 부서들이 그에 보조를 맞추어 집중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였다. 조직부에서는 선전선동부와의 배합작전계획을 잘 세운데 기초하여 농장에서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늘이며 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였다.

한편 근로단체사업을 맡은 부서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운동, 청년돌격대활동, 녀맹돌격대활동 등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밖에도 모든 부서들이 농장의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을 적극 도와나섰다.

지도사업의 화력밀도를 최대로 높여준 부서들사이의 배합 및 협동작전은 이 단위가 짧은 기간에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들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사업에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당책임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것을 비상히 높여나간것이다.

시당책임일군부터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틀어쥐고나갔다.

지난해 11월 시안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고조시키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결심한 시당책임일군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선군시대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평양시열성자들의 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였다.

회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부쩍 높여주고 이 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시당책임일군들의 깊은 관심은 아래단위들에서 모든 문제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시켜 풀어나가도록 지도하는데서도 잘 표현되고있다.

시당책임일군은 시의 물문제, 땔감문제, 려객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방도를 해당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았다.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아래 사업소들과 수도려객운수국아래 사업소들, 구역연료사업소들에서 설비현대화, 인민경제계획수행, 면모 일신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수도시민들을 위한 물문제, 땔감문제, 려객수송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책임일군들이 당위원회안의 모든 부서들과 일군들을 발동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최근년간에만도 시적으로 수십개의 령도업적단위들이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것을 비롯하여 지난 40년간 2 350여개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적지도를 비상히 강화해온 시당위원회의 전투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본사기자 김순영

최후승리의 추동력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발단 40돐을 계기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이 소식은 온 나라 당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대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오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야말로 단위의 비약적발전을 담보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우리는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랴. 이것은 40년의 력사를 통하여 그 진리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승리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혁명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여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 운동의 첫 봉화를 든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전국적으로 1만 5 70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 2 800여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 180여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

참으로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 계급진지가 철통같이 다져지고 국방공업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밝은 전망이 펼쳐졌다.

40년의 력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가장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부서와 당일군들을 발동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결의목표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이 운동을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비롯한 여러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단체조직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비약하며 전진하는 오늘의 위대한 시대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상의 강자들로 억세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력사의 땅 검덕!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검덕의 로동계급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운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40년전 검덕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모든것은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집단적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혁명,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우선 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대중교양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왔다.

련합기업소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취가 어린 혁명사적지와 령도업적단위들이 많다. 백암동혁명사적지, 막장혁명사적지…

당위원회는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검덕혁명사적관, 혁명사적물보존실, 연혁소개실 등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고 참관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기업소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었다.

이런 교양사업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석수가 떨어지는 수천척지하막장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3대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광부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광물증산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사업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령도업적단위들을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모든 단위들을 선군혁명동지집단으로 만든것이다.

금골광산에는 지난 수십년간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성장한 소대들이 있다. 엄혹한 시련의 시기 당은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은 4.5갱 안정민채광소대, 장군님께서 소대전원을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몸소 만나주신 4.5갱 고경찬채광소대, 《75년생소대》라고 불리우는 4.5갱 김용일채광소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어린 친필을 받아안은 영광갱 박태선영웅소대…

당위원회는 이 소대들의 광부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워 련합기업소의 본보기로 내세우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책임일군들이 이 소대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소대원들과 일도 함께 하고 당세포총회지도, 개별담화, 선동원들과의 사업 등 여러가지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그들을 사상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 온 나라에 소문난 소대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단위들이 이 소대들의 모범을 따라 분발해나서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이런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좋은 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한모습으로 우리 당만을 받드는 진짜배기충신,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지난 40년간 3명의 공화국영웅을 비롯하여 20명이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3명이 공훈광부로 자랐고 많은 선군시대공로자들이 배출되였다.

이 나날 460여개 당세포가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4개의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를 포함하여 70여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사상혁명의 불길속에서 일군들과 광부들을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워온 이곳 당조직의 당사업기풍을 통해서도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게 된다.

본사기자 김향란

기술혁명의 불길속에 비약하는 모습

강서구역 청산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부문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제일먼저 추켜든 강서구역 3중3대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이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였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과정을 통하여 농장의 과학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운동은 혁명이 전진하고 근로자들의 준비정도, 지향과 요구, 사회의 물질기술적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야 합니다.》

이곳 리당위원회에서는 대중운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 영예를 계속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키워내는 사업을 시종일관 중시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리당위원회가 여기에 다시한번 주목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다.

몇해전 작업반들에서 청산농업대학 입학대상자명단이 리당위원회에 올라왔을 때였다.

리당비서 길선군동무는 응당 있어야 할 농장원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 주목을 돌리였다.

사연을 알아보니 로력이 긴장한 조건에서 농장원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문제는 몇해 좀 미루었으면 하는 일부 초급일군들의 그릇된 주장때문이였다. 리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자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있던 리당일군이였기에 그는 우선 초급일군들의 이런 낡은 관점부터 바로잡아주어야겠다고 보았다.

물론 우리는 대중운동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그렇다고 해서 농장의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을 잠시나마 늦추자는 의견에는 동의할수 없다. 우리 농장이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했다고 하여 만족해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장을 끊임없이 비약시킬수 없다. …

리당일군의 호소는 작업반초급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작업반들에서 배우려는 열의가 높은 농장원들을 농업대학들에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한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도 적극 망라시켰다. 뿐만아니라 과학농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해마다 농장적인 문답식학습경연도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청산리사람들의 과학기술수준은 지난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농업의 기계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최신분석설비들과 실험기구들을 그쯘히 갖춘 농장분석실에서는 농장원들이 토양분석은 물론 농작물의 잎과 뿌리 등의 생체성분분석까지 진행하고있으며 종합지령실에서는 콤퓨터로 포전들에 설치된 송상카메라에서 보내오는 포전상황과 자동기상관측설비들이 시간별로 전송해오는 바람속도와 방향, 대기압, 강수량, 해비침률, 태양열복사량 등의 자료를 종합분석하면서 과학농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고있다.

청산리가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올수 있은것은 바로 리당위원회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자대부대를 훌륭히 키운데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작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채인철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녀성혁명가가 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녀성동맹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일흔돐을 맞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당과 녀성들을 련결시키는 인전대, 녀맹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는 위력한 사상교양단체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찌기 녀성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에 토대하여 주체34(1945)년 11월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년대마다에서 녀성동맹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언제나 녀성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녀성동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동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당중앙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여주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며 녀성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떨쳐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 따뜻한 사랑속에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녀성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여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이 동맹조직을 녀성혁명가들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며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축하문은 녀성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승장구하여온 조선민주녀성동맹의 70년력사는 녀성동맹을 창립해주시고 녀성운동발전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여 동맹을 위력한 사상교양단체, 대중정치조직으로 건설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녀성동맹을 무어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작성발포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우리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인 녀성정치조직,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튼튼히 서고 녀성혁명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활력있는 전투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녀성운동의 영광넘친 로정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그는 어머님께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받드시여 광범한 녀성들을 녀맹조직에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녀성동맹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의 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에 대한 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동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조직사상적위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녀성조직들도 많지만 조선민주녀성동맹처럼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첫걸음을 떼고 그 손길아래 70년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아로새겨온 긍지높고 영광스러운 조직은 없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녀성동맹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녀성운동사상을 필승의 기치로 추켜들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보고자는 모든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녀성동맹사업에서의 새로운 혁명적전환과 주체적녀성운동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녀맹사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 동맹조직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대오로 꾸리며 모든 녀맹원들이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각급 녀맹조직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녀맹원들을 일편단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견결한 혁명투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체현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녀성혁명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녀맹조직과 일군들이 누에치기운동과 녀맹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조직들은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며 모든 녀맹원들을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녀맹조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좀먹는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는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녀맹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도시와 마을, 일터와 거리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녀성들이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 백두산대국의 기둥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우며 어머니, 가정주부, 안해,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일군들은 녀성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일군이라는 긍지와 영예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녀맹원들과의 사업을 진실하게, 적극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녀맹사업성과로 맞이하며 주체적녀성운동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이들처럼 기수, 전위투사가 되자

청 진 철 도 국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최근 청진철도국에서 철길강도를 높이고 철도수송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국관내의 수백개에 달하는 철다리들이 표준철다리로 되고 채석광산이 개건되여 생산능력이 6배로 높아짐으로써 철길자갈을 마음먹은대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국관내의 수백개의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고 채석광산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다싶이 하여 철길자갈생산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것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청진철도국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다.

레루를 받드는 침목처럼

몇해전 청진철도국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흔적을 가시고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일군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철길강도를 높이고 철도수송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위한 문제가 진지하게 론의되였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신심이 없어하였다. 철다리침목은 너비와 높이, 길이가 일반침목보다 더 크다. 철도국관내의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자면 그러한 철다리침목이 수만정, 그 침목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부기름 수십t이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레루못, 걸개볼트, 깔판을 비롯한 고착품이 10여종에 수십만개, 용접봉만도 근 2t이 있어야 한다.

그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표준철다리로 만든다는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았던것이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에서 철길강도를 높이는것은 순간도 소홀히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철길강도문제를 론의할수 있겠는가.

모임이 끝났으나 김성규동무의 귀전에는 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단위의 일군들과 함께 청진철도국아래 혜산, 백암, 길주, 회령철도분국의 철길대들에 나갔다. 철길대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든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식된 철다리침목을 한두정씩 교체하고있었다.

그날 김성규동무는 단위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철길대들에서 자기가 담당한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킵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먼저 국관내에서 제일 긴 2개의 철다리를 표준으로 만들어놓고 철길부문 일군들에게 보여주기사업을 하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결심에 단위일군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다음날부터 그들은 고착품생산에 필요한 수십t의 파철수집에 떨쳐나섰다. 가족들까지 동원되였다. 리원길, 김일건동무들은 파철이 수집되는 차례로 철도공장으로 운반하여 소재를 부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공공정으로 운반하여 밤을 지새워가며 깔판, 레루못, 걸개볼트 등 고착품으로 만들어나갔다.

철다리침목보장을 맡은 구자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눈덮인 채벌지에서 침식하면서 전투를 벌리였다.

채벌지로 선정된 연사지구에서 신참지구로, 다시 금패지구로 옮겨가면서 그들은 철다리침목감을 마련해갔다. 어떤 날에는 몇대밖에 채벌하지 못하여 밤에 불망치를 들고 다시 산판을 누빈 때도 있었다. 어느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따라 계획된 침목감을 해지기 전에 채벌한 기쁨속에 구자성동무는 침목감들을 하나하나 검사해나갔다. 그러던 그는 몇대의 침목감이 규격보다 작은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는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보여줄 비상한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산판으로 올랐다.

그렇게 한달동안 그들은 눈덮인 산판을 누비며 끝내 1 500여대의 철다리침목감을 마련하였고 련이어 제재, 침목가공, 방부 등의 공정을 거쳐 철다리침목을 한정한정 완성하였다.

이러한 헌신적인 투쟁속에 철다리침목과 고착품들이 마련되자 그들은 철길대외의 련계밑에 2개의 철다리를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면서 수백m의 철다리에서 침목과 고착품들을 100% 교체하고 새롭게 설치하기 위한 전투는 간단치 않았다. 백금철, 장영철, 엄선남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밤에도 곳곳에 불망치를 꽂아놓고 전투를 벌려나갔다.

마침내 2개의 표준철다리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움과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저녁 단위일군들은 기쁨속에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석달동안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는 그들의 얼굴마다 보람과 긍지가 한껏 어리였다.

그러나 김성규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한 철길부문의 한 일군이 철길소대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으므로 고착품소재로 쓸 파철도 구하기 어렵고 또 자체의 힘으로 철다리침목을 마련하자면 몇해가 걸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타까와하던 모습이 눈에 밟혀와서였다.

그 이야기를 하며 김성규동무는 단위일군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철도국관내의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오늘의 보여주기사업으로 그칠수 없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였던 그는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레루를 받드는것은 침목입니다. 두줄기 레루를 묵묵히 받드는 침목이 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면 우리 단위의 힘으로 얼마든지 국관내의 모든 철다리를 표준철다리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두해에 할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관내 수백개의 철다리들을 모두 표준철다리로 완성》이라는 가볍지 않은 짐을 지고 다시 먼길에 나섰다.

두해가 지나고 여섯해가 지났다. 그 나날 그들이 넘고 헤쳐온 고난과 시련의 날과 달들이 얼마인지 모른다.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떠난 그 길에서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국관내의 수백개에 달하는 철다리들을 하나하나 표준철다리로 완성해나갔다.

불가능을 모르는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와 만난 구자성동무는 말하였다.

《철길강도를 높이는데서 철길자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충해주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가 론의될 때마다 상정되는것이 자갈생산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철길자갈생산에서 기적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는 회령지구의 풍산채석광산을 개건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해전 3월 어느날 청진철도국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그들을 찾아왔다. 당책임일군은 그들이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도 광차며 쇠바줄, 고장난 전동기를 수리하여 보내주어 상룡전지구의 채석광산에서 철길자갈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풍산채석광산까지 돌아가면 철길자갈문제는 풀리겠는데…》라고 하며 회령지구의 풍산채석광산을 살릴 방도에 대하여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제기해달라고 하였다.

그날 김성규동무는 밤깊도록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거의 멎어있다싶이 한 그 광산을 살리기 위하여 철도국에서는 몇해전부터 여간 품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풍산채석광산은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였다. 실제로 광산을 살리자면 파쇄기, 전동기, 생산공정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흐름식으로 개건하자.

그들은 이렇게 또다시 풍산채석광산개건에 달라붙었다.

국관내의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면서 채석광산개건투를 벌리는것만큼 그들은 설계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개건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빠짐없이 타산하고 분공조직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때로부터 1년 7개월, 그들은 어떻게 날이 가고 달이 가는지 몰랐다. 설비감독기관과의 련계밑에 고장난 전동기며 감속기들을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려낸것만도 28대나 되였다. 어느 한 기관의 지붕에 씌운 철판을 보고 가족들까지 떨쳐나서 생산한 기와를 씌워주고 6t의 철판을 해결한 때도 있었다. 어느 한 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면서 사장된 2기의 용선로에서 12t의 철판과 3t의 형강을 얻기도 하였다. 어느 한 공장에서 폐기시킨 기중기본체를 낮에 밤을 이어 해체하여 28t의 형강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너무 기뻐 우등불을 피워놓고 밤깊도록 춤판까지 벌리였다.

높은 전압파쇄기를 자체로 마련하는 과정은 자갈생산능력을 6배로 높이는가 아니면 종전그대로 하는가 하는 생산문제이기 전에 불같은 충정과 정신력의 무한대한 힘을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하는 나날이였다.

《돌이켜보면 풍산채석광산을 개건하는 과정은 정신력이 총발동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실천투쟁속에서 뼈에 새겨온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습니다.》

구자성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높은 전압파쇄기를 어느 한 공장에 의뢰하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공장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높은 전압파쇄기본체를 주물하고 부분품을 가공, 조립하자면 많은 자금과 함께 기일이 1년 6개월이상 걸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채석광산에 있는 중형파쇄기의 부분품들을 가공조립하여 그대로 살려쓰자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규동무는 머리를 저었다.

—광산에 있는 중형파쇄기를 살려내여 생산을 정상화한다고 해도 국관내의 철길구간에 자갈을 한번씩 보충해주는데 5년이상 걸려야 한다. 그렇게 할수 없다. 파쇄기의 능력을 무조건 5배이상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배짱과 담력으로 그들은 끝내 도안의 어느 한 단위에서 대형파쇄기본체를 해결할수 있었다. 그때부터 부분품들을 자체로 설계하고 가공, 조립하여 중형파쇄기보다 생산능력이 6배이상인 높은 전압파쇄기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장마철의 무더기비와 흙사태로 자갈저장 및 출하장의 벽체가 기울어졌을 때에는 누구나 손맥을 놓았다. 한t한t의 세멘트를 자체로 마련하며 두께 50㎝, 높이 9m, 길이 50m되게 건설한 자갈저장 및 출하장의 벽체가 장마철의 무더기비와 흙사태에 밀리여 5m높이에서 금이 가면서 기울어졌던것이다. 전투의 첫날부터 근 한해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장에서 살다싶이 한 리상철동무며 주원석, 리철남 그리고 광산지배인 리영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청진철도국 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을 안고 일어서자.

그러면서 당책임일군은 세멘트를 당위원회에서 보장하겠으니 다시 전투를 벌리자고 호소하였다.

그날 그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쪼아박으며 결연히 일떠섰다. 진지한 협의속에 금이 가고 벌어진 벽체를 보강할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들이 나왔다. 전투장에는 붉은기가 나붓기고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혁명가요 《적기가》가 메아리쳤다. 자갈저장 및 출하장의 벽체보강전투장과 높은 전압파쇄기조립장, 전차와 광차조립장, 벨트콘베아조립장 등 어느 전투장에서나 전투원들은 록음기에서 울리는 《적기가》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려나갔다. 국장을 비롯한 철도국일군들은 수백m에 달하는 콘베아의 벨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보장해주었다.

올해 2월 생산능력이 6배로 높아지고 흐름식으로 개건된 풍산채석광산에서 첫 시운전이 진행되였다. 발파한 돌을 가득 실은 전차가 광차를 달고 달리였다. 높은 전압파쇄기에서 생산된 질좋은 철길자갈이 수백m의 벨트콘베아에 실리여 자갈저장 및 출하장에 쌓이였다.

며칠후 화차들을 달고 전기기관차가 자갈저장 및 출하장으로 들어섰다. 질좋은 철길자갈이 차판마다 폭포처럼 쏟아지며 차올랐다. 이어 전기기관차는 출발을 앞두고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였다.

그 기적소리에 김성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눈굽이 찌릿이 젖어들었다. 그것을 어찌 기적소리라고만 하랴. 그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담력과 배짱으로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을 일떠세운 김성규동무를 비롯한 이곳 단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고동치는 영원한 삶과 투쟁의 메아리가 아니였던가.

* *

청진철도국관내의 수백개의 철다리들을 표준철다리로 만들고 풍산채석광산을 개건하여 생산능력을 6배이상 높이는 기적을 창조한 김성규동무를 비롯한 이곳 단위의 일군들은 지금 새로운 방부제생산기지건설전투에 또다시 달라붙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침목의 부식을 막고 수명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의 벅찬 시대는 이들처럼 애국헌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로주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7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뽈스까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7돐과 뽈스까독립절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뽈스까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7돐과 뽈스까독립절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주조 뽈스까공화국대사관, 조선뽈스까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17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뽈스까기발이 행사장에 세워져있었다.

영화감상회에는 류경일 조선뽈스까친선협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과 다리우슈 빠블리크 주조 뽈스까공화국 림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먼저 발언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뽈스까예술영화 《와르샤와봉기》를 감상하였다.

국제유술련맹 위원장

여러곳 참관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이 17일 청춘거리중경기관을 참관하였다.

위원장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여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 중경기관을 돌아본 다음 금메달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일념을 안고 혼련에 열중하고있는 유술선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그는 인민야외빙상장 등을 참관하였다.

국제유술련맹 위원장 청춘거리 중경기관을 참관

로씨야련방 사법성대표단 도착

알렉싼드르 꼬노발로브 사법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사법성대표단이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상철 최고재판소 부소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이날 최고재판소에서는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신종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사이의 2차경기 진행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바레인팀사이의 2차경기가 1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팀은 지난 9월 3일에 있은 바레인팀과의 1차경기에서 1:0을 기록하였다.

앞서 진행된 경기들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우리 나라 팀은 바레인팀과의 경기 첫시작부터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선수호상간 협동을 잘하면서 공격을 강화해나갔다.

전반전 추가시간에 우리 팀의 9번 박광룡선수가 바레인팀의 무례한 반칙으로 선언된 11m벌차기를 성공시킴으로써 전반전은 1:0으로 우리 나라 팀이 이긴 가운데 끝났다.

후반전에 들어가 경기는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우리 팀은 상대팀의 방어진을 허물어버리며 공격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기본경기시간이 지난 후에도 역습속공을 노리던 우리 팀의 9번 박광룡선수가 공격마당 오른쪽으로 몰고들어가 련락해준 공을 불의에 돌입하던 11번 정일관선수가 단번에 차넣은것이 그대로 통쾌하게 그물에 걸렸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바레인팀을 2:0으로 이겼다.

한편 12일에 있은 우리 나라 팀과 우즈베끼스딴팀과의 2차경기는 1:3으로 끝났다.

강원도수산관리국에서

물고기잡이실적 3배이상 장성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선 강원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과 산하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수시로 달라지는 어황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 보름 남짓한 기간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배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 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수산관리국과 산하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은 어로공들속에서 5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어장을 타고앉아 어로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고있다.

사업소별, 어선별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날에날마다 어획고가 부쩍부쩍 뛰여오르고있다.

중심어장을 재빨리 차지한 원산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로전투를 벌려 계획보다 2배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였다.

통천수산사업소에서도 어장들에로의 신속한 집중과 분산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올리고있다.

고성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고기배들의 정비와 어구준비를 짧은 기간에 끝낸 사업소의 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고기떼들을 련일 잡아들이고있다.

두포의 어로공들이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월 물고기잡이계획을 19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드넓은 동해의 어장을 주름잡는 강원도수산관리국안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파감한 투쟁에 의하여 물고기잡이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 귀국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우리의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이 17일 귀국하였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이란, 타이를 비롯한 8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2개 조로 나뉘여 련맹전을 벌리고 매 조에서 1위와 2위를 한 팀들이 승자전의 방법으로 준결승, 결승경기를 진행하였다.

조별련맹전 2조에 속하여 우즈베끼스딴, 중국대북, 일본팀과 경기를 순조롭게 치르고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팀을 2:1로 이긴 우리 선수들은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1:0으로 통쾌하게 타승함으로써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으며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우리 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영웅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금메달로 빛내여나가려는 체육인들의 고귀한 애국충정의 결정체로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돌아온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앞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림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은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식민지지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날조 110년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국제조약체결력사상 가장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날조된 《조약》들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을사5조약》은 철저히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정책의 산물이였다. 하지만 일본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떠들며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식민지지배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일본이 제아무리 《을사5조약》에 《적법》의 모자를 억지로 씌우려고 책동해도 조약 아닌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은 절대로 부정할수도 말살해버릴수도 없다.

1. 《을사5조약》은 최고주권자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법문서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치욕스러운 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비법문서, 협잡문서이다.

《을사5조약》이 비법문서로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조약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조작된 조약이라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이다. 이로부터 근대시기의 국제법인 《관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원조약》에서는 다같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일제는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을사5조약》을 군사적위협과 무지막지한 강박의 방법으로 날조하였다. 1905년 10월 27일 일본정부가 채택한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의 건》에서는 조선봉건왕조가 《보호조약》에 거절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방적으로 한국에 보호권을 확립한다는것을 통고》한다고 결정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38권 1책 1958년 526페지-527페지)

또한 1905년 10월 28일 일본외상 고무라 쥬따로는 당시 서울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에게 보낸 《일본의 대한국보호결정을 위한 준비요건의 훈령》에서 조선주둔 일본침략군사령관 하세가와에게도 《필요한 방조》를 주도록 훈령할것이니 하야시는 하세가와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4 338페지-339페지)

이것은 일제가 처음부터 총과 대포에 의거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려고 계획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협박으로 일관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미 《을사5조약》이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고종황제와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에 대한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속에서 강제로 날조된것이므로 불법무효하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일제의 100년죄악사를 고발한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년 52페지-55페지)

일제는 《을사5조약》을 《합법적인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기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것과 같은 중대한 조약은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국가대표자의 비준서를 필요로 하는 비준조약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대시기 국제조약체결형식에서 보편적인것이였다.

일본 근대초기의 권위있다고 하는 국제법학자들이 발간한 《국제법잡지》(1902년-1911년)에 실린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협정형식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에 의하면 각국의 외교협정 56건중에서 전권위원임명과 그 위임장교환, 비준교환에 관한 조항을 둔것은 36건, 그렇지 않은것은 20건이였다.

위임장 및 비준서조항을 둔 조약들은 통상항해조약, 《보호조약》, 평화조약 등 국권에 직접 관련되는것들외에 국가의 리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들이였다. 《보호조약》에는 프랑스-튜니지사이의 《보호조약》(1881. 5. 12.)외 4건의 《보호조약》들이 들어있었다. (일본잡지 《세까이》 1999년 3월호)

이것은 당시 국가의 존망과 리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조약들에는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가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제법학자들도 인정하고있었다. 일본의 국제법학의 개척자라고 하는 데라오 도오루는 《조약에 비준을 요하는 리유》에 대하여 《국가존망흥폐의 경우는 물론 국민의 휴척(불행이라는 뜻-인용자)에 관한 가장 중대한 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비준-인용자)를 거부하는것을 막을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서 동맹조약, 담보조약, 《보호조약》 등을 들었다. (《국제법외교잡지》 제4권 2호 1905년 10월 2페지)

실지 일본도 청일전쟁이전시기까지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한 불평등조약들인 《강화도조약》(1876. 2.), 《제물포조약》(1882. 7.), 《조일수호조규속약》(1882. 7.), 《한성조약》(1885. 1.) 등 6건의 조약들을 비준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일본잡지 《세까이》 1999년 3월호)

이 조약들은 어느것이나 다 조선의 국권과 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중요한 조약들이였다.

비준조약형식은 항상 일본측에 의하여 먼저 제기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봉건왕조는 전권위임장을 발급하고 비준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국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있던 상황속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저들이 획득한 리권들을 《법》적으로 고수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요구대로 비준조약형식을 취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노리고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후 파렴치하게도 저들이 지금껏 지켜온 국제법적준칙과 《대한국황제는 각 체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찰케 하고 선전포고,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종실록》 권39 광무3년 8월 17일), 《국서, 조약비준, 외국파견위임장, 재류각국령사 인증장은 국왕이 친히 서명하고 국새를 찍어야 한다.》(《고종실록》 권32 갑오31년 11월 21일)라고 한 조선봉건왕조의 조약체결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조약들을 비준조약이 아니라 전권위임장과 비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략식조약형식으로 날조하였다.

우에서 지적한 일본 《국제법잡지》에 실린 20건의 비준조약이 아닌 외교협정문들중 18건은 일본이 체결당사국으로 되여 《조인》한것들이다. 이 협정문들의 대부분은 일제가 조선의 국권강탈과 국토병탄을 노리고 조선봉건왕조와 유미렬강들사이에 체결한것들이며 여기에는 《한일의정서》, 《한일협정서》, 《을사5조약》, 《정미7조약》 등이 들어있다. (일본잡지 《세까이》 1999년 3월호)

일제가 로일전쟁이후 조선문제와 관련한 조약들에 한해서만 국제법적요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데 대해 《을사5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일본학자들까지도 《일본정부가 … 비준조약으로 하지 않았던것은 조인후 비준서교환까지의 사이에 비준을 저지하려고 한 한국내의 저항이나 제3국의 간섭을 위구하였기때문일것이다.》(일본잡지 《세까이》 1999년 10월호)라고 하였다.

당시 일제가 《을사5조약》날조와 관련하여 우려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이 세상에 자기의 국권을 통채로 외세에 순순히 내맡기고 식민지로 굴러떨어질것을 바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국권을 어떻게 하나 지켜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사이의 모순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거기서 위구를 느낀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직결된 극히 중대한 조약인 《을사5조약》을 하루속히 날조하기 위해 종당에는 이것을 비렬하게도 《략식조약》이라고 우겨댔던것이다.

저들의 범죄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던 일제는 그후 조약형식에서의 결점을 늦게나마 메꾸기 위해 1907년 7월 헤그밀사사건을 기회로 친일매국역적 리완용 등을 시켜 고종황제에게 《을사5조약》에 옥새를 누를것(비준서를 념두에 둔것임-인용자)을 강박하였으나 고종황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황성신문》 1907년 7월 19일)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법문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일본학자는 《바꾸어 말하면 일본외무대신이 외교권위양문서에 서명까지 한다면 전쟁전(태평양전쟁을 말함-인용자)의 대일본제국헌법밑에서라면 〈천황〉의 승인에 기초한 비준없이, 현행헌법밑에서라면 국회의 승인에 기초한 비준이 없이 일본의 외교권이 상실된다는 결론으로 된다. 그와 같은것이 국제법상 상식적인 해석일가?》라고 반문하였다. (《류고꾸법학》 42권 3호 316페지)

이것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당시 일본이 《천황》의 비준없이 《을사5조약》과 같은 조약을 강요당하였더라면 일본정부는 자국의 헌법과 국제법을 자대로 하여 그러한 조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였을것이다.

2. 조약협상에 대한 고종황제의 《재가》설은 완전한 날조

《을사5조약》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일본학자들은 《체결되는 조약형식은 그 내용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면서 일본은 조선과 《천황》, 황제의 재가로서 체결하는 조약형식으로 《을사5조약을 체결》하였기때문에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가 없는것이 곧 《을사5조약》의 무효원인으로 될수 없다고 강변하고있다. (일본잡지 《세까이》 1999년 10월호)

그러나 력사적사실은 조선봉건왕조가 일본과 《을사5조약》의 조약형식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론의해본적도 없으며 고종황제가 《을사5조약》에 찬성한다는 재가를 내린적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히려 일본이 《을사5조약》을 날조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고종황제가 마치도 재가한것처럼 사료들을 외곡한 력사의 란폭한 위조자이라는것을 립증해줄뿐이다.

일본학자 하라다 다마끼는 《고종실록》, 《일성록》 등에 실린 1905년 12월 16일부 기록 《5대신상소문》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여 고종황제의 《재가》설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의정부대신서리 리완용,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리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군부대신 리근택 등 5명이 련명으로 고종황제에게 상소하여 저들이 황제의 재가를 얻지 않고 《을사5조약》을 제멋대로 체결하였다고 하여 《매국노》, 《5적》으로 지탄받고있는데 대하여 《을사5조약》은 황제가 주도하여 그의 재가를 얻어 체결한것이고 5명의 대신이 제멋대로 뱃은것은 아니라는것, 조약체결의 책임은 당시의 정부대신 8명전원에게 있고 5명의 대신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사실의 경과를 진술하여 저들의 결백성을 밝히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하라다는 《을사5조약》날조이후 고종황제가 이 《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유미렬강을 대상으로 하여 벌린 비밀외교활동을 비난하면서 그를 앞에서는 조약에 찬성하고 뒤에서는 조약무효를 주장하는 《로련한 궁중정치가》로 묘사하였다.

그렇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던 《을사5적》들이 당시의 력사적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상소하였겠는가 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05년 12월 22일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수상 겸 외상 가쯔라에게 보낸 비밀전보 《5대신상소문봉정에 관한 건》에서 12월 16일 매국노로 불리우는 5명의 대신들이 협약(《을사5조약》을 말함)당시의 정황을 상술하여 이 협약이 정당한 형식을 밟아 황제의 재가를 거쳐 조인에 이른 전말과 또 각자의 언동을 밝혀 일반사람들의 오해를 푸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소를 올리려는 뜻을 몰래 자기에게 알렸다고 하면서 《이 상소문을 보니 5대신의 립장으로부터 다소 수식한것은 면할수 없으나 대체로 요령이 있는것으로 되고있습니다. … 오히려 이에 의하여 신협약이 우리들의 압박에 의하여 나온것이 아니라는것을 일반에게 자세히 알리는데 리익이 있다고 인정하였기때문에 곧 이에 대한 회답을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을사5적》들이 《상소문》을 고종황제에게 올리기 전에 먼저 하야시에게 보이고 그와 협의하였다는것 그리고 하야시는 그 《상소문》이 《다소 수식》할것》이라고 가필하여 초안을 수정하였다고 한다. 이 수정초안내용이 《일본외교문서》에 수록된 《봉사기사적요》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한다. (《을사5조약의 연구》 54페지-55페지)

이것은 일제가 고종황제가 《보호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것을 동의한것처럼 의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을사5조약》날조를 《합법화》, 《정당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여주고있다. 일제가 을미사변, 조선왕궁습격사건 등 조선침략과 관련하여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언제나 사료날조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써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료를 외곡한다고 하여 력사적사실이 달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진실로 남아있기마련이다.

고종황제가 《을사5조약》에 찬동하지 않았다는것은 11월 15일 그가 이또와 한 회담내용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는 《보호조약》을 강요하는 이또에게 《대외관계위임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를 절대로 거부하는것은 아니지만 요는 다만 그 형식을 보전하고 내용과 같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정하여도 다른 뜻이 없다.》고 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38권 1책 1958년 501페지)

고종황제가 말한 《형식》이란 국교를 맺은 나라와의 사신 즉 공사교환제도를 말하는것이였다. 11월 16일 이또가 대신들을 불러다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고종황제의 뜻대로 《형식》만은 보전시켜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또는 이에 대해 《…외교는 형식과 내용의 구별이 없기때문에 … 도저히 희망에 응할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38권 1책 1958년 488페지-491페지)

고종황제가 공사교환제도를 그대로 유지할것을 요구한 사실은 그가 어떻게 하나 나라의 외교권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5대신상소문》에 기초하여 고종황제의 《재가》설을 운운하며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의 주장이 전혀 무근거하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고종황제의 《재가》설은 《을사5조약》의 비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근거의 하나로 되고있는 략식조약형식의 근본적인 결함을 가리우기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3. 조약명칭도 없는 조약 아닌 《조약》

1905년 11월 17일에 일제가 날조한 《조약》의 정식원본에는 무슨 조약이라는 명칭이 없고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이다.

국제관례상 조약명이 밝혀져있지 않으면 조약문이라고 할수 없으며 그러한것을 조약체결상대국과의 협의에 제출할수 없고 거기에 서명할수도 없다.

하지만 일본외무성 조약국이 1934년에 출판한 《구조약휘찬》 제3권(조선, 류큐)에 실린 《을사5조약》일본어판에서는 《일한협약》, 영문판에서는 《협약》, 조선어판에서는 《일한협상조약》이라는 명칭을 각각 쓰고있다. 이에 대해 일본학자 도쯔까 에쯔로는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대일본제국정부가 조선어판도 〈날조〉하여 공표하였다고 평가되여도 할수 없다. 조선어판원본에 제목이 없는것이 사실이라면 영문번역도 날조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다면 〈1905년 한국보호조약〉에는 제목도 없으며 이것은 미완성의 문서에 불과한것이 아닌가. 결국 조약문기초단계의 원안이였다고 고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대일본제국정부는 미완성의 조약문원안에 제 마음대로 제목을 붙여 조약을 날조하고 이것을 내외에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던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류고꾸법학》 42권 3호 320페지-321페지)

조약명칭도 없는 《조약》을 날조하고도 모자라 또다시 있지도 않은 조약명칭을 날조하여 세상에 공표한 나라는 오직 교활성과 악랄성을 체질화한 일본밖에 없다.

당시 일제는 국제조약체결사에 류례없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데 급급하던 나머지 조약명칭을 미처 달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는 《조약》을 렬강들로부터 인정받자면 그 형식을 차려야 하였던것만큼 일제는 명칭도 없는 《조약》에 처음 제멋대로 《한국외교위탁조약》이라는 명칭을 비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수상 겸 외상 가쯔라에게 《〈한국외교위탁조약〉은 곤난한 교섭끝에 다소 수정을 가하여 어제 17일부로 오늘 새벽 1시에 궁중에서 외부대신 박제순과의 사이에 조인을 끝냈습니다.》라는 전문을 보내여 《한국외교위탁조약》이 《조인》된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38권 1책 1958년 264페지)

1905년 11월 19일 하야시는 당시 서울주재 영국, 미국공사들과 만난 후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외교위탁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우와 같은 책 273페지)

그러나 11월 20일부터 그 명칭이 갑자기 《일한협약》으로 바뀌여졌다.

가쯔라는 11월 20일부로 영미 량국정부에 협정문을 제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주영, 주미일본공사들에게 보낸 전문들에서 《을사5조약》을 《협약》이라고 하였고 11월 21일 주미일본공사가 미국무장관에게 《을사5조약문》을 제출한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쯔라에게 한 보고서에서도 《일한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우와 같은 책 276페지)

그리고 11월 22일 유미각국에 《을사5조약》체결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절차에 관한 가쯔라의 지시전문에서는 《일한보호협약》, 《일한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우와 같은 책 280페지)

일제가 처음에 《을사5조약》에 《조약》의 명칭을 붙였다가 후에 《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것은 《조약》이라고 하는 경우 비준서가 문제로 나서기때문이였다.

그후 일제는 이 《조약》을 《일한협약》이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협잡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조약명칭도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권을 서슴없이 강탈하고 한 민족의 운명을 무참히 롱락한 제국주의는 이 세상에 오직 일제밖에 없다.

참으로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은 어느모로 보나 철저히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비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강도적으로 날조한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40여년간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는 실로 막대한것이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이 파렴치하게 행동할수록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은 백배, 천배로 더욱 강렬해질것이며 우리 인민은 백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총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평 양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로동시장구조개악 저지!》, 《현 〈정권〉 물러나라!》

서울에서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대규모민중총궐기투쟁 전개, 각계층 군중 15만명 참가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 남조선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주최하에 서울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대규모민중총궐기투쟁이 전개되였다.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철거민련합,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비롯한 50여개의 단체 성원들, 각계층 군중, 고등학교학생들까지 포함하여 15만명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서울시내 곳곳에서의 로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각계층별집회들로 민중총궐기투쟁이 시작되였다.

민주로총은 서울광장에서 전태일렬사정신계승 2015로동자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로동개악과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단체는 민중의 사상을 지배할 목적으로 력사쿠데타를 감행하고 더 쉬운 해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늘이게 하는 로동개악을 서슴지 않는 당국의 악정을 끝까지 저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농민단체들도 당국의 쌀시장개방정책 등을 성토하는 항의집회를 가지였다.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은 상공회의소앞에서 민중총궐기 교사결의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국정화》고시는 교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자 민주화파괴의 선포라고 단죄하였다.

한편 전국철거민련합소속 빈민들과 장애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청년단체성원들이 대학로주변에서 민중총궐기집회들을 가지였으며 시내도처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이 거세차게 울려나왔다.

집회들을 마친 각계층 단체들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로동시장구조개악 저지! 학교비정규직차별 철폐!》, 《현 〈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기 위해 시위행진에 나섰다.

이날 파쑈경찰은 수만명의 폭압무력을 내몰아 민중총궐기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을 앞두고 남조선당국은 《로동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느니, 《〈정부〉를 믿으라.》느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느니 하며 훼방하였다.

지어 민중총궐기투쟁에 대해 《불법집단행동》, 《폭력행위》로 헐뜯으며 《엄정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력설하다 못해 이러한 기도가 비낀 《정부》 5개 부, 처의 공동담화라는것을 공표하며 위협하였다.

당국의 폭압지령에 따라 파쑈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이 시작되자 청계광장을 비롯하여 투쟁장소주변들에 물대포 등으로 무장한 탄압무력을 배치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찰차들로 차벽을 만들어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자들의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격분한 시위자들이 차벽을 넘어서려 하자 경찰은 그들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

파쑈경찰은 물대포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사사격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시위자들의 코앞에서 마구 쏘아대며 폭압에 날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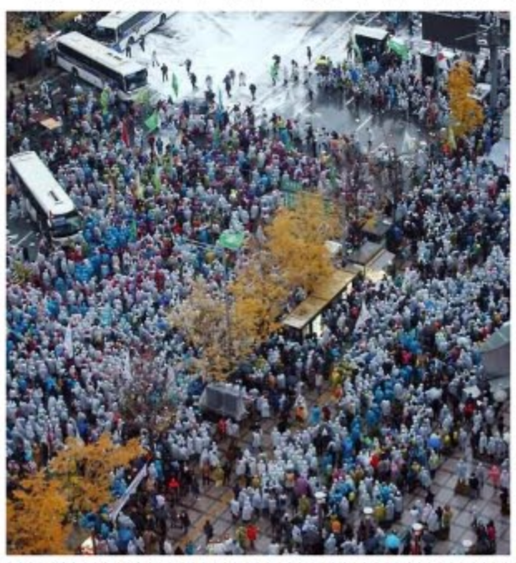
그리하여 물대포에 맞은 고령의 한 농민이 뇌타박을 입고 중태에 빠졌으며 수많은 시위자들이 골절, 출혈 등으로 쓰러졌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파쑈경찰은 나어린 고등학교학생들을 포함하여 50여명을 강제련행하는 파쑈적폭거도 감행하였다.

경찰의 야수적폭압을 본 경기도 성남시장은 모든것이 《유신》회귀, 《국정화》되는 시대라고 하면서 곧 군인이 민중을 향해 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파쑈경찰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민중총궐기투쟁 참가자들은 저지선을 뚫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리면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용납치 않으려는 굳센 의지를 과시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날의 투쟁이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투쟁이후 최대규모의 투쟁이라고 하면서 파쑈경찰들의 야만적인 시위진압에 대해 폭로하고 규탄하였다.



ㄱ-51182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